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아버지에게 속함으로써 너희들은 빈 조개껍데기 하나도 쓰지 않고, 1초 만에 해방된 삶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믿음을 갖자마자 너희들은 유산을 받는다.
- 질문:** 예리한 지각을 가진 현명한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이야?
- 대답:** 진정한 순례를 하며 남들도 참된 순례를 하도록 고취하는 것이 예리한 지각을 가진 자녀들의 의무이다. 참된 순례는 “만마나바브”이다. 이 순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온갖 종류의 방황에서 구제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비롭듯, 예리한 지각을 가진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자비로울 것이다.
- 질문:**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어떤 것을, 너희들은 계속 모든 이의 귀에 속삭여 주느냐?
- 대답:** 바바가 말한다: 자녀들아, 나를 기억하여라. 육신의 어떤 존재도 기억하지 마라. 육신의 존재를 기억하면 너희는 육체의식이 된다. 그러므로 육신의 존재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여라. 계속 이 이야기를 모든 이의 귀에 속삭여 주어라.
- 노래:** 나의 행운이 일깨워져서 내가 왔네.

옴 산티. 자녀들의 행운을 창조하는데 비용이 드느냐? 부모들이 아이를 가질 때, 아이가 유산을 받게 하는 데 돈이 조금이라도 드느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산을 받는다. 그들은 신문에 아무개의 상속자가 태어났다고 기사를 실는다. 어린 아이가 돈을 썼느냐? 아니다. 그는 그저 태어났을 뿐, 돈은 전혀 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데 자식이 없다면 그는 아이를 입양할 것이다. 그 아이가 돈을 썼느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해방된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1초 만의 해방된 삶이 기억된다. 너희들은 신인들이 삶 속에서 해방되어 있었으며, 세계의 주인들이었다는 것을 안다. 오직 바라트에만 해방된 삶이 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속하는 데 돈이 조금이라도 드느냐?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이게 전부다. 자나크가 1초 만에 해방된 삶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기억된다. 그는 그저 아버지를 알아보는 인식을 얻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말해봐라, 너희와 팔로킥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과의 관계가 무엇이야? 너희가 "지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는 아버지이다. 바바는 묻는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는데 조금이라도 비용이 드느냐? 전혀 안 든다. 그저 나에게 속하기만 하여라. 이것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1초 만에 해방된 삶”이라는 말이 있다.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애가 무슨 돈을 냈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속한다. 그렇게 하려고 너희가 돈을 냈느냐? 너희들은 단지 지각에 믿음을 가졌을 뿐이었다: 바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천국의 주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버지는 천국의 창조자이다. 너희가 받는 유산은 천국의 주권이다. 그건 믿음을 갖는 것의 문제이다. 너희들은 동전 한 닢도 쓰지 않는다. 오직 기억함으로써만 너희가 다이아몬드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은 해방된 삶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로 쓴다. 빈 조개껍데기 하나조차 쓰지 않고, 너희들은 주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비틀대며 몹시 헤매왔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순례를 하느라 많이 넘어지면서 돌아다닌다. 심지어 그들이 배회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안내자들과 종교인들조차 있다. 그들은 돈도 무척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이 아버지는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행운이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지각에 자리를 잡지 않는다. 비틀대며 넘어지는 모든 이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저 바바의 멀리를 듣고 나서 남들에게 설명해주는 일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남들에게는 뭘 말해줘야 하고, 또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겠느냐?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순례를 떠난다. 너희들은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바바가 너희에게 알려준 방법들을 실행에 옮긴 자는 이제껏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당신과 지식의 대양인 정화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바바, 저는 지금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바바에게 보내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무개를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느냐? 너희들은 바바에게 소식을 전혀 전해주지 않는구나! 만일에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자나크가 그랬듯이 너희도 1초 만에 바바에게서 해방된 삶을 차지할 수 있다. 바바는 너희들에게 최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작은 카드를 코팅해서 인쇄하여라. 어디라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우편카드를 지니고 있어라. 그들은 순례의 길에서 그저 비틀대며 돌아다닐 뿐이다. 너희들은 이런 글귀를 적을 수도 있다: 여러 생 동안 비틀대며 넘어져온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십시오. 이것을 풀면 당신은 1초 만에 해방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바가 너희에게 글귀까지 일러준다. 총명한 자녀는 뭔가를 아주 잘 쓴 다음에 그걸 인쇄해서 남들에게 보내줘야 한다. 큰 도시에서는 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아주 아름다운 플라스틱 카드들을 지니는데, 그것에 트리멀티의 스탬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바바는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전략들을 알려준다. 자나크는 1초 만에 해방된 삶을 받았다. 그들은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비록 이것이 아시타바크라 기타에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한낱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실제로 설명하려고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한 분인 신, 아버지만이 지각 있는 분이다. 라반이 다른 모든 이들을 지각 없게 만들었다. 순수한 이들은 지각 있다고 불리고, 불순한 자들은 지각이 없다고 불린다. 아무도 이 무한한 측면을 모른다. 이것은 전적으로 간단하다. 그들이 그저 “네, 그는 진정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여라. 자녀는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유산을 받는다.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굴레에 묶인 삶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분은 정화자라고 불리는, 유일한 아버지이다. 여기는 라반의 사악한 왕국이다. 저 분은 신, 아버지이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에게서 천국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천국이라고 불린다. 낡은 세상의 거대한 멸망이 바로 너희들 앞에 와 있다. 그것이 더 미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 전쟁이 내일이라도 곧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한다. 그들은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것도 역시 이해한다. 너희들은 프라자피타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카드에 이런 글귀도 인쇄하여라: 이 수수께끼를 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빈 조개 껍데기만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1초 만에 해방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지위도 역시 등수대로이다. 지식을 통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돈 등의 문제가 없다. 바바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말한다: 뭔가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이미 받았는데, 왜 뭔가를 달라고 청하겠느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기들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원한다. 너희들은 이제 바바의 자녀들이다. 모든 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영혼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아들인데, 왜 나와 유산을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브라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인 너희(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브라마의 자녀이기도 하다. 달리 너희가 어떻게 브라마의 집에 갈 수 있겠느냐?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브라마는 천국의 창조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구루는 브라마가 아니다. 사트구루는 단 한 분뿐이다. 이 브라마도 역시 그에게서 배운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운 후에 떠나면, 너희가 가디에 앉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의 사트구루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모두 그에게 배워서 구원을 얻는다. 너희 자녀들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 많은 기회가 있다. 너희들은 이런 카드들을 갖고 사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바가 알려주고 있는 방법들은 아주 쉽다. 바바는 계속 모든 것을 점검한다. 기차에서 10명이나 2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그는 원한다. 너희가 한 명에게 질문하면, 나머지 10명이 그 얘기를 들을 것이다. 집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은 대단할 게 없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저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여라. 어린 아이들의 지각에는 이것이 남지 않는다. 그들이 조금 더 자랐을 때, 그들의 지각에 이것이 머문다. 너희의 신체기관들은 더 크다. 해방된 삶은 1초 만에 받는다. 너희들은 바바가 너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 가엾고 무력한 사람들이 밖에서 대단히 많이 넘어지며 돌아다닌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하다. 집에서 바바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딸들이 무척 많다: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바바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전혀 없다. 그들은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해요. 저는 반드시 당신에게서 유산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쓴다. 그들은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한다. 그런 딸들은 다른 많은 이들을 앞질러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매를 맞지 않으며, 그런데도 이 봉사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바바의 말을 무시하기까지 한다! 카드는 어떤 언어로든 인쇄할 수 있다. 원가를 실천하는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지각을 써야 한다. 바바는 너희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다. 저 세계의 정부는 파괴를 위해서 대단히 큰 위원회들을 구성해 놓았다. 너희가 불멸의 지위를 차지할 좋은 방법들이 아주 많다.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돈을 많이 쓰는 반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아라! 너희들은 아무 비용도 쓰지 않는다. 신봉의 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너희들은 1초 만에 해방된 삶을 받는다. 지각 있는 자녀들은 이런 카드를 인쇄해서 바바에게 보여야 한다. 우리들은 바바에게서 아주 쉽게 우리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해진다. 순례를 반쯤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가난한 자들은 아주 많이 배회하며 다닌다. 너희들은 그런 가엾고 무기력한 이들을 측은하게 여긴다. 여러분은 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지옥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한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다: 알라의 집에 가려면 알라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한 분만 기억하고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수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여라: 당신은 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조차도 그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브라마 바바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쉬브 바바를 기억해야만 된다. 당연히 몸을 벗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한 분만 기억해야 한다. 쉬브 바바가 말한다: 단순히 나를 기억하여라! 육신의 존재는 아무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의식을 가져라! 육신의 존재들은 이미 전부 다 죽었다. 아버지가 말한다: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기억하여라! 세상에서는 그들이 계속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귀에 한 가지를 속삭인다. 이것은 아주 쉽다. 알파와 베타이다. 아버지와 왕국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만마나바브”의 의미이다. 나머지는 모두 세부사항이다. 아버지가 시혜자이다. 너희 자녀들도 시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오늘 몇 명에게나 유익을 주었는지,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너희는 사방 곳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하나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 너희들은 떠돌아다녀야 한다. 나는 너희가 다른 순례를 다니지 않아도 될, 그런 순례를 가르치고 있다: 만마나바브! 너희들은 실제 순례자들을 따라다녀야 한다. 아주 예리한 지각이 필요하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길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빈
조개껍데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천국의 주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2. 무엇을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자비로워져서 모든 이에게 참된 길을 보여줘라.

축복:

슬픔의 세상에서 비켜서서 행복의 화신, 행복의 신인이 되어라.

행복의 대양의 자녀인 너희들은 행복의 화신들이며 행복의 신인들이다. 너희는
슬픔의 세상을 이미 떠났고 그것에서 멀어졌으므로 너희는 생각으로도 슬픔을
끼치거나 슬픔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 얘기한 어떤 말로 너희가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남들이
뭘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여부는 너희에게 달렸다. 누군가 슬픔을 일으키고 있을
때라도 너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뭘 취해야 하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뭘지 체크해라. 취하는 데서도 지혜로워져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의 화신, 행복의 신인이 될 것이다.

슬로건:

너희들의 단계는 너희의 의식을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행복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